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  
보유자

김응숙







농악은 공동체 음악이다. 지금이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우선되지만, 태생이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수단이었다. 오로지 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고된 농사일,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조상들의 삶 속에서 농악은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삶의 예술이었다.

광명농악의 역사는 근 450년이 넘는 세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명농악은 현재의 철산동과 소하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웃마을인 학운동 등에서도 자주 행해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광명에서도 주요 농경지였던 이곳은 들이 넓고 논이 발달했지만, 흙이 질어 홍수가 나면 논밭이 진펄이 되기 일쑤였다. 척박한 지리 조건 하에서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협동해야 했다.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난 광명농악은 두레풍물의 모습을 짙게 띠고 있다.

광명농악은 정해진 판제 속에서 다양한 놀이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마당굿 전에 굿머리와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벽구와 당산벌림, 피조리놀이, 가새벌림, 사통백이, 좌우치기, 짹짹이, 개인놀이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안에서 23가지 놀이가 펼쳐진다.



이 중에서도 당산별림은 마을의 신에게 당산제를 올리는 과정인데, 디근(ㄷ)자 형태로 일자로 길게 서서 치배는 가락에, 뒤에 있는 놀이패의 법구잡이(소고를 들고 상모를 돌리는 사람)는 법구놀이에 치중하는 동안 상쇠가 혼자 중앙에 나와 쇧가락을 연주하며 이따금 자신의 기예를 선보인다. 또 당산별림에서는 법구잡이들이 원진을 이루며 몸을 공중에서 회전해 착지하는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는 고난도 곡예를 선보이는데, 마치 고등어 자반을 구울 때 이리저리 뒤집는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자반뒤집기’라 부른다.

피조리놀이도 눈여겨 볼 만하다. 피조리는 남사당패에서 여성으로 분장해 여성의 놀음을 대표하는 인물을 일컫는다. 여기서도 여성으로 분장한 인물들이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벼를 베 탈곡하는 농사의 전 과정을 모방하는 행위를 한다. 이때 텅덕궁이의 신명난 가락과 함께 느리지만 풍성한 굿거리를 사용한다. 농악대 전원이 일정하게 원진을 이루며 각각 서 있는 위치에서 좌로 세 발, 우로 세 발, 앞으로 세 발, 뒤로 세 발 등을 움직이는 좌우치기는 자진텅덕궁 가락에 맞춰 좌우전후로 오고가며 다함께 어우러져

경쾌한 놀이 한마당을 벌인다.

찍찍이를 끝으로 모든 판굿이 끝나고 개인놀이가 시작하는데, 농악 대원들이 개인 기량을 뽐내는 순서다. 상쇠놀이부터 범구놀이, 장구놀이, 북놀이, 열두발상모놀이 등이 있는데 광명농악에서는 무동놀이가 진행된다. 어린 무동들이 추는 깨끼춤과 맞동리, 삼동, 곡마당, 논고리와 같은 다양한 무동타기는 광명농악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지켜진 지역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다. 오직 광명만이 도시라 부를 수 있다. 사실 광명은 농촌에서 빠르게 산업 도시로 변모했다. 급격하게 도시로 발전하며 전통문화가 지켜지기란 쉽지 않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된 타 도시에서 전통문화가 소리없이 사라져 간 사례와 비교한다면 광명농악의 성과는 사실 놀라운 것이다. 광명농악은 지역의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오히려 활발하게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이들에게 모범사례이자, 그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주목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 경기일보

▶ 뉴스 > 지역종합 > 광명시

### 8년째 광명예총 이끈 임웅수 회장 “농악은 내 운명… 광명 문화예술 융성은 내 사명”

임웅수 기자 kyj@kyeonggi.com ■ 노출순인 2016년 11월 20일 17:59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제0면

“평생을 농악과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광명의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8년째 (사)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지회(이하 광명예총)를 맡고 있는 임웅수 회장(54)은 수많은 문화행사를 통해 광명시 문화예술 융성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평생을 농악과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광명의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8년째 (사)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지회(이하 광명예총)를 맡고 있는 임웅수 회장(54)은 수많은 문화행사를 통해 광명시 문화예술 융성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무형문화재 광명농악 보유자인 임 회장은 지난 1995년 광명농악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고 다음해에는 경기도 대표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광명농악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후 임 회장은 광명지역의 아방리줄다리기, 아방리농요, 구름산도당놀

이, 철산리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를 재조명해 광명농악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특히 지난 2010년 광명시 충현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광명시립농악단을 창단하고 충현고 농악반 설치를 주도해 충현고를 농악전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광명농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현재 광명의 문화예술은 열악한 환경에 처했지만 자생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창의적이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공연은 시민의 발을 돌리게 한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공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성남중학교 재학시절 민속놀이반 동아리에 들면서 농악과의 첫 인연을 맺은 뒤 공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민속촌 농악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농악 인생을 시작했다. 그 후 서울 신당동에 마당풍물놀이를 창단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중요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명창인 이춘목 선생과 인연으로 광명시민국악단에서 활동하며 54개국 해외공연과 1천500회의 국내공연을 펼쳤다.

그는 “임기를 마치면 다시 농악인으로 돌아와서 광명의 전통문화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17년 현재 보유자 임응수는 사)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기문화재발견 시리즈  
Gyeonggi Culture Rediscovery series



흥에 취하고 가락에 노니다  
상공(第1奏者) 임응수  
Lost in tunes and gaiety, Sangong, Im Wung Soo



제33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光明農樂)  
The 33rd Showcase: Kwangmyung nongak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of Gyeonggi-do No. 20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건강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꽃을 피우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 ▶ 흥에 취하고 가락에 노니다. 상공 임응수(경기문화재단 제작,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홈페이지 : 광명농악보존회(www.농악보존회.kr)